

고흥 동강농공단지 보조금 76억 부당지원 공무원 송치

고흥경찰서, 입주 수요 부풀린 시행사 관계자 3명도 포함

고흥경찰서는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관련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흥군청 공무원 12명과 사업 시행사 관계자 3명 등 총 1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흥군청 공무원들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사가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76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시행사 관계자들은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주 수요를 부풀린 혐의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박병중 전 군수가 지난 2015년 지역 농수산물 가공·유통의 거점을 목표로 추진됐다. 국고 보조금과 민간 투자금 등 308억원을 투입해 29만9000㎡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초 사업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고흥군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4억원, 불류센터 건립 사업으로 22억원 등 모두 76억원을 지원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동강특화농공단지 부당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박 전 군수 등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전 군수는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고흥=한윤섭 기자

보성군, 명품딸기 생산 위한 '꽃눈분화' 검사 서비스

내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방문해 직접 확인

보성군은 20일부터 딸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화아분화 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화아분화(花芽分化)는 생육조건이 충족돼 꽃눈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꽃눈분화라고도 한다.

보성딸기는 재배면적 71ha에 총 조수입이 200억원 가량이 달하는 고소득 작목이다. 딸기 가격이 가장 좋

은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많은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농가 소득 증대의 관건이다.

딸기는 반드시 화아분화 확인 후 정식해야 조기 수확이 가능한 작목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육묘기 딸기의 화아분화 상태를 현미경으로 검사해 정식 시기와 화아분화 촉진 기술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딸기 재배 농가는 자가 육묘의 경우 각각 위치가 다른 딸기묘 3~4주를 뽑아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현미경으로 직접 생장점을 보고 화아분화 진행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화아분화 검경을 하지 않고 미분화된 묘를 정식하게 되면 딸기는 1~2개월 정도 수확이 지연된다"며 "정식 후 화아분화를 촉진해 1화방이 빨리 나오도록 2화방의 분화가 더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보성=안규일 기자

“버스도 없는데 면허증 반납?” 농촌 고령운전자 95% ‘반대’

취약한 교통환경, 대중교통 카드 지급 실효성 떨어져



자진 반납하겠다는 설문조사에 94.8%가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반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아직은 운전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가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가 16.6%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노화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사고예방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평균 속도 및 과속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차선 유지와 위한 핸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호등 색상 판별에 더 많은 인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밀도에서 고령층 비중이 더 높고 도로 환경도 도시지역 보다 열악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뉴스1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응답자 중 운전을 '매일 한다'는 응답이 77.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시 대중교통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나이에 근거한 일괄적인 운전 관리 방안보다는 고령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주요 교통법규 위반 고령자를 대상으로 추가 인지기능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농촌지역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및 자동차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 좋아지는 파린하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단계를 보인 18일 오후 서울 도심 하늘이 파랗다.

고흥군, 하반기 귀농인

51명에 100억규모 지원

고흥군은 최근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51명, 99억 5,200만원(농업창업 80억 4,000만원 주택자금 19억 1,200만원)의 귀농 창업 자금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정된 대상자는 지난 6월 선발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7월 현장 조사를 거쳐 3차 외부전문가 대면심층 심사로 최종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선정 대상자들은 농자구입, 비닐하우스, 축사신축 및 구입(임식자금 포함)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등 고흥에서 영농기반과 주거시설을 확보하여 귀농 창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9월부터 학교 개소식과 함께 귀농인 필수사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숙박, 교육, 체험 등 '고흥귀농귀촌 행복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기 교육생 선발모집 중에 있다.

따라서 신청대상자는 도시민 중 고흥군으로 이주할 예비귀농인 및 희망자 그리고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 중 5년 이내면 신청가능하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 6. 30일 기준 고흥군 귀농귀촌 유입통계가 168명('18년 142명)으로 전년 대비 26명(18%)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귀농·귀촌인 유입 인구의 증가 폭이 평균 5.5% 감소 추세임에도 전국에서 4번째로(전남 2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한윤섭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